

사회

■ ‘김수철 사건’ 충격... 광주시내 초등학교 가 보니

# 낮선 방문자 접근에도 무방비 학부모 “수위실 복원” 한목소리

일요일인 13일 오후 3시. 광주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녀 어린이 10여 명이 모여 훌라후프 놀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에 이들을 돌보는 어른이나 학교 방범요원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니 어린이들은 “일요일이면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주 놀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후에도 한참동안 학교에서 뛰어놀았다.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교내 곳곳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성인 30여명이 축구를 하거나 벤치 등에 앉아있기도 했다.

열려있는 정문을 통해 들어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학교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누구도 용건을 묻는 사람은 없었다.

금요일이었던 지난 11일 찾아가 광주지역 초등학교 5곳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이었던 지난 11일 찾아가 광주지역 초등학교 5곳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이었던 지난 11일 찾아가 광주지역 초등학교 5곳도 마찬가지로

도 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어른들이 많다”며 낮선 방문자에 대해 전혀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지났지만, 광주지역 학교의 치안대

담장 허물어 누구나 출입... 체크하는 경비실 없어

CCTV 학교폭력 예방용·안전요원 오후 5시 퇴근

책은 여전히 허술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지역 초등학교 6곳을 확인한 결과 학교 입구 출입상황을 체크하는 경비실은 단 한곳도 없었다. CCTV도 시설물 보호나 도난사고·학교폭력 예방 위주로, 학교 건물이나 교사

뒤쪽에 배치돼 아이들 보호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1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고 294개교에 학교당 3.2대꼴인 949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CCTV 대부분이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

사(校舍)뒤쪽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교사 뒤쪽에 그 흔한 ‘방범등’조차 설치되지 않아 주변이 어두워지는 늦은 오후가 되면 CCTV 촬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또 1990년대 들어 인력감축 등이 이유로 학교 정문을 지키는 ‘경비

원’이 사라지고, 학교경관조성을 명목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과 학교 시설의 지역민 환원 사업에 따른 학교 개방이 이뤄지면서 각 학교의 외부인의 출입 관리는 사실상 전무한 공간이 돼 있었다.

지난 1997년 학교경비 등을 위해 배치된 ‘학교안전요원’도 매일 오후 5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9시에 퇴근하는 탓에 낮 시간대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휴일에는 단 1명의 안전요원이 24시간동안 전체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

다.

광주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 학교 안전요원은 “24시간 학교가 개방돼 있어 실질적으로 외부인이 들어오더라도 제지하기 어렵다”면서 “사실 우리의 주 근무목적은 학교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인 만큼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교 24시간 순시·순찰 시스템 구축 등 학교안전망 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예산 등의 이유로 때문에 담장 시행되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학부모 이모(여·38·광주시 북구)씨는 “성범죄나 납치사건이 벌어지면 저항하기 어려운 남녀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수위실조차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일단 수위실이라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영등포경찰은 지난 7일 초등학교를 학교 운동장에서 남치해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간간)로 김수철(44·구속)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수철(44·구속)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수철(44·구속)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수철(44·구속)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수철(44·구속)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강도 잡은 용감한 시민들

40대 3명, 흥기 찢리고도 30분 격투

어제 광주 쌍암동서

40대 시민 3명이 강도가 휘두른 흥기에 찢려 부상을 당하고도 뒤쫓아가 범인을 붙잡은 뒤 경찰에 넘겼다.

광주경찰청에서는 13일 도심 한 모퉁이에 침입해 물품을 훔치던 중 발각되자 주인을 흥기로 위협한 뒤 달아난 안모(37·서구 농성동)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2일 밤 9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모 나이트클럽 인근 A모텔에서 옷·화장품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오던 중 주인 손모(30)씨에게 들켜 흥기로 위협

한 뒤 달아났다.

안씨는 도망가던 중 “강도야”라는 손씨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민 정모(40)·김모(43)·정모(43)씨 등 3명에게 흥기를 휘둘러 허벅지·손가락에 부상을 입힌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안씨는 뒤쫓아온 이들과 30분간 격투 끝에 붙잡힌 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정씨 등은 A모텔 인근 나이트클럽·식당에서 일하는 이웃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강도를 검거하는데 공을 세운 이들에게 포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진도 ‘독극물 막걸리’ 진실

진술 분석하면 드러날까?

경찰, 대검에 의뢰키로

“진도 독극물 막걸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마을주민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진술 분석 의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진도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31일 진도군 의신면 조모(여·64)씨의 주점에 침입해 막걸리 보관통에 독극물을 넣어 조씨가 독극물이 섞인 막걸리를 마시게 한 용의자로 지목된 마을 주민 A(여·68)씨에 대해 대검찰청에 진술분석을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 당일 밤 A씨가 조씨의 주점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봤다”는 마을 주민의 진술을 확보해 A씨를 상대로 3차례 이상 조사를 벌이고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현재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거문도 갯바위 낚시객

1명 추락사·1명 구조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인근 해상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정씨(63·울산시 남구)씨가 바다에 추락해 숨졌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

다. A씨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집에서 잠을 잤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분석기법은 심리분석기법·거짓말탐지기법·뇌파분석기법과 더불어 대표적인 과학수사기법으로 실제 경험한 사건에 대한 진술과 꾸며내거나 상상을 바탕으로 한 진술은 내용과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글로 쓰여 지거나 구두로 진술된 내용을 분석해 신빙성을 평가한다.

진술분석기법은 또 ‘김길태 사건’에서 사용된 수사기법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분석이 곧장 사건의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앞으로의 조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park@

## 나원침 (8046) 김중두



버스·승용차 충돌 3명 부상

13일 오전 9시10분께 여수시 선원동 모 병원 앞 도로에서 정모(54)씨가 몰던 ‘진남70아50××호’ 시내버스가 구모(여·43)씨가 몰던 ‘12수81××호’ 클릭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씨와 딸(14)·아들(7) 등 3명이 머리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어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버스는 연료를 충전하려 가던 중이었으며, 승객은 한 명도 없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정수근 이번엔 음주 교통사고



○지난해 9월 ‘음주 사건’으로 인해 은퇴한 전 프 로야구 선수 정수근(34)씨가 이번에는 음주교통사고를 내 물의.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정씨는 13일 새벽 4시께 혈중 알콜농도 0.125%의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강남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서 민모(31)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는 것.

○정씨는 롯데 소속이던 지난 2008년 음주 후 폭행 사건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가 지난해 1군에 복귀했지만, 또다시 술을 마신 후 물의를 빚어 은퇴하는 등 끊임없는 음주사고로 인해 ‘입방아’.

연합뉴스

## 목포 자동차부품점 불

1억6000여만원 피해

지난 12일 오후 3시35분께 목포시 상동 C자동차부품 소매점 주방에서 불이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불은 소매점 내부 302㎡와 자동차 부품 7000여점, 냉장고 등 주방기기 등을 태워 1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으나 가게에 있던 종업원 등이 일찍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선반 위 천정에서 갑자기 불꽃이 일었다는 종업원 이모(26·목포시 상동)씨의 진술을 토대로 전기 누전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는지 아리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주택가 골목 방역

광주 동구 보건소(소장 남 현)는 일본뇌염 등 여름철 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13일 동명동 주택가 골목 등에서 방역활동을 벌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압도적 1위 시설 합격을 강사진

남보다 빠른 합격의 기회는 바로 여름방학이다!

# 공무원 합격전략 설명회

## 유망 직종 합격전략 설명회

일시: 6월 25일(금) 14:30 ~ 18:00

타원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5년연속 호남지역 최다합격자 및 수석합격자 배출

광주지역 수강생 80%이상 석권

#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북구청앞 062-234-0234)